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들(뉴욕 연은 총재 마탄 아사), 12월 정책금리 인하 지지
 - 미국 경제활동 개선(11월 종합 PMI 54.8). 미국 노동통계국은 10월 CPI 발표 취소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EU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
 - 일본은행(BOJ), 우에다 총재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등 어조 변화 조짐
 - **국제금융시장:** 연준 금리인하 기대, 엔비디아 AI칩 중국 수출 검토로 위험선호 일부 회복
미국 주가 상승[+1.0%], 달러화 보합[+0.0%],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은 뉴욕 연은 총재의 정책금리 인하 지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은 라-우 종전 가능성 대두에 따른 방산주 부진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 마일 금리차 축소 기대에 따른 엔화 강세 불구 유로화 약세로 보합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1% 약세, 엔화는 0.7% 강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금리인하 기대가 회복되면서 하락
독일은 경제지표 부진(제조업 PMI 53.9 → 52.1)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하락
- ※ 뉴욕 1M NDF 증가 1467.8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0.0원, 0.38% 하락). 한국 CDS 보합

		11.21일	11.20일	전일대비			11.21일	11.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03.0	6,538.8	+0.98%	국채 금리 10y	미국	4.06%	4.08%	-2bp
	유럽	562.10	563.94	-0.33%		독일	2.70%	2.72%	-2bp
	중국	3,834.9	3,931.1	-2.45%		영국	4.55%	4.59%	-4bp
	일본	48,626	49,824	-2.40%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853.3	4,004.9	-3.79%		중국	48bp	47bp	+1bp
환율	달러지수	100.18	100.16	+0.02%	위험 지표	EMBI+	-	281	-
	유로화	1.1513	1.1528	-0.13%		VIX	23.43	26.42	-11.32%
	엔화	156.41	157.47	+0.68%		WTI유	58.06	59.14	-1.83%
	위안화	7.1052	7.1165	+0.16%	원자재	구리	501.5	496.9	+0.94%
	원화	1,475.6	1,467.9	-0.52%		금	4,065.1	4,077.2	-0.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들, 12월 정책금리 인하 지지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9월 실업률이 노동시장 과열 이전 시기의 수준으로 상승했고, 관세가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다소 긴축적인 수준인 정책금리를 중립에 가깝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 연준 미란 이사,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하면 연준은 현재만큼 제약적인 필요는 없다고 진단. 아울러, 12월 FOMC에서 본인의 결정이 정책금리 결정을 좌우하는 입장(marginal vote)에 처한다면 확실히 25bp 인하에 투표할 것이라고 언급
-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연준이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놓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12월에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경제활동 개선.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10월 CPI 발표 취소

- S&P Global 종합 PMI는 10월 54.6에서 11월 54.8(4개월래 최고)로 상승. 제조업이 52.5에서 51.9(4개월래 최저)로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54.8에서 55.0(4개월래 최고)으로 상승한 데 기인. 한편, 뉴욕 연은의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Nowcast)는 +2.31%, 애틀랜타 연은의 추정치(GDP Now)는 4.2% 유지
- 노동통계국(BLS),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취소하기로 결정. 정부 예산 문제로 수집하지 못했던 서베이 자료들은 소급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11월 CPI의 경우 12.10일에 발표 예정(12.9~10일 FOMC 이후)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

- 라가르드 총재, EU 내부에는 관세 100%에 비견되는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이 존재하며(제조업은 65%), 모든 EU 국가들이 네덜란드와의 장벽 격차의 1/4 정도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미국 관세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을 소개하면서 28번째 제도 도입 등 진정한 단일시장 달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
- 권도스 부총재, 유로존 경제 성장은 부진하지만 ECB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며 현재 가용한 정보와 경제지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고 발언

■ 유로존 종합 PMI,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소폭 하락

- S&P Global이 발표한 유로존 HCOB 종합 PMI는 10월 52.5에서 11월 52.4로 소폭 하락. 서비스업 PMI는 53.0에서 53.1(18개월래 최고)로 상승했으나 제조업 PMI가 50.0에서 49.7(5개월래 최저, Bloomberg 예상치는 50.1)로 하락한 데 기인
- ING는 올해 들어 기업 심리가 명백히 개선되었으나 유로존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부진하고 있으며, '26년에도 기업 심리 개선을 즉각적인 성장세 가속으로 연결 짓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

■ 일본은행(BOJ) 총재,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우에다 총재, 과거에 비해 일본 기업들이 가격과 임금 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율 변동이 기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수 있다고 경고. 내년 임금 상승 방향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just a bit more 필요하며 12.18~19일 금정위 회의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 feasibility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Reuters는 11.20일 준코 정책심의위원 발언("일본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명백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의도치 않은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에 이어, 최근 일본은행의 어조가 매파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

■ 멕시코 경제, 제조업 부진으로 '25년 3분기 역성장 기록

- 통계청(INEGI), 멕시코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감소(전년 동기 대비 -0.2%)했다고 발표.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은 +3.5% 성장했으나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이 -1.5% 감소한 데 기인. 3차 산업(운송, 금융 등)의 경우 +0.2% 성장

■ 태국 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한 4분기 경기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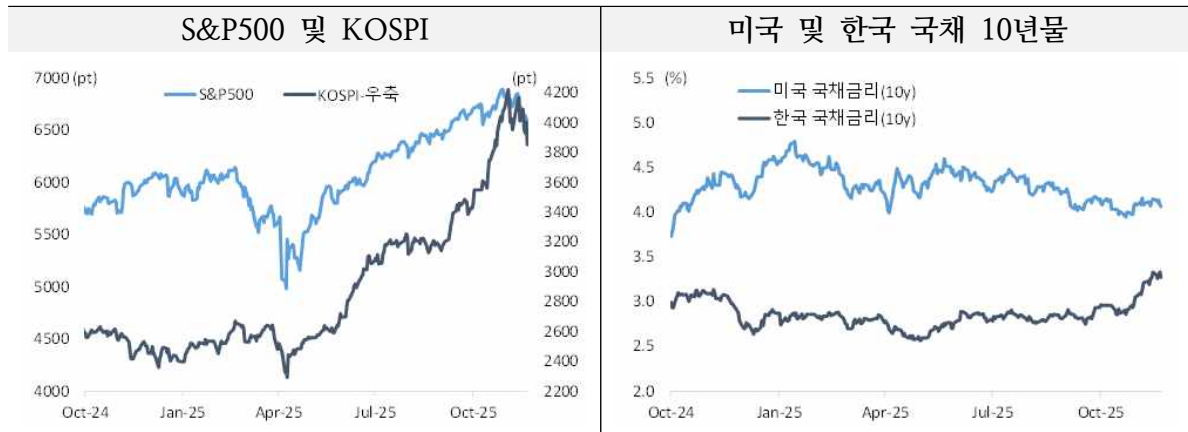
- 니티탄프라파스 재무장관, 태국 3분기 경제성장은 부진(+1.2%_{yoy}, 4년래 최저)했으나 4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 수품툰 상무장관은 향후 바트화 강세에 따른 태국 수출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에 주력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10.29~12.31일 440억바트(≈\$13.6억) 소비자 보조금 조치 시행. 다음 주 중소기업 지원 조치 발표 예정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Bloomberg 서베이, 88.5), 미국 11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10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대만 10월 실업률(3.38%) 등 경제지표 발표.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 등 예정(이상 현지시간 11.24일 기준)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